

일본단신뉴스	청과물 수송비 삭감을 위한 제언	2014.12.26
도쿄aT센터		

- 일본 농림수산성, 수송업체, JA전농 등으로 구성된 청과물류시스템고도화연구회는 25일, 높은 시세가 계속되고 있는 청과물의 수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.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산지간 연계, 저렴한 철도 및 해운 등 수송 방식의 도입이다. 또한, 산지와 유통업체, 실수자 등 3자의 물류시설이나 팔레트 등 기자재 공동이용 등 관계자간의 연계 강화도 포함했다.
-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산지의 생산체제 장비에서는 청과물의 대 로트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. 구체적으로는 기존 산지를 넘어 “대산지 연합체제”로의 집출하다. 그 실현을 위해는 집출하 시설의 재편 정비나 재고, 거래, 매출액 등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.
- 생산면에서는 육모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 체계의 도입을 강조하였다. 생산비용 삭감을 위해 농업기계의 리스 및 렌탈 활용, 청과물 수확에서의 작업수탁체제의 확립을 권하였다.
- 수송에서는 철도, 해운에의 운송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, 수송수단의 변경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설비, 기기의 도입 추진을 내걸었다. 또한, 수확 최성기에는 저장을 하여 단경기에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하도록 청과물 저장기술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.
- 농림수산성은 연말까지의 선진사례나 효율적인 물류를 위한 관계자의 대처, 자재 정보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신한다. ‘15년에는 산지부터 실수까지 관계자가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의 설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, 사업 예산에도 반영할 전망이다.

<자료원> 일본농업신문 ‘14.12.26